P-37

라미부딘 치료로 호전된 B형 간염 바이러스 연관성 사구체신염

건국대학교병원 신장내과[1], 병리과[2]

이응준[1] · 윤현성[1] · 조한수[1] · 이정현[1] · 이종호[1] · 박정환[1] · 임소덕[2] · 조영일[1]

Resolution of Hepatitis B Virus-associated Cirrhotic Glomerulonephritis Following Lamivudine Therapy

Eung-Joon Lee, HS Yoon, HS Jo, JH Lee, JH Lee, JH Park, SD Lim and Young-Il Jo

[1]Departments of Nephrology, [2]Pathology, Konkuk University Hospital

Lamivudine이 **B**형간염 **(HBV)**과 관련된 막성신증후군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, **B**형 간염과 관련된 혈관간세포 증식성 사구체신염 **(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)**의 치료에도 효과적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. 저자들은 **B**형간염에 의한 간경화증 환자에서 신증후군과 육안적 혈뇨가 나타난 후에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신장조직검사로 혈관간세포증식성 사구체신염로 확진한 다음에 **lamivudine**을 투여하여 호전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.

증례; **4**개월 전에 만성 **B**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**(59**세, 여자**)**가 **7**일전부터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와 입원하였다. 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신체 검진상 복수와 양 하지에 반구진성 반점이 관찰되었다. 소변검사상 요단백 **(3+)**, 적혈구 **>100/HPF**, 그리고 적혈구 원주가 관찰되었고, **24**시간 소변검사에서 **3,100 mg/24h**의 단백뇨가 나왔다. 혈액검사에서 **BUN 24.8 mg/dL, Cr 1.3 mg/dL, total protein 6.1 g/dL, albumin 2.4 g/dL,** 혈청 **IgG 1,828 mg/dL, IgA 655 mg/dL, IgM 204 mg/dL, C3 63 mg/dL, C4 18 mg/dL**이었다. **HBe antigen**과 **anti- HBe antibody** 모두 양성이었고 혈청 **HBV DNA titers**는 **4.19×105 copies/mL**이었다. 지속적인 **Cr**의 상승과 단백뇨가 있어 입원 **13**일째에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혈관간세포의 현저한 증식을 보이는 혈관간세포 증식성 사구체신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**lamivudine** 투여를 시작하였다. 입원 **30**일째에 혈청 **Cr**이 **8.5 mg/dL**으로 상승하고 요독증상이 나타나 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**110**일째에 투석을 중단하였다. **Lamivudine** 치료를 시작한지 **4**주째에 육안적 혈뇨는 소실되었고, **8**주째에 단백뇨도 소실되었다. **Lamivudine** 치료 **8**개월 후, **HBe antigen**과 **HBe antibody**가 음전되지는 않았지만, 혈청 **HBV DNA titers**는 **103 copies/mL**로 감소하였고, **10**개월 째에는 **HBV DNA titers**가 **500 copies/mL**로 감소하였다. 이후 환자는 퇴원하여 외래에서 임상관찰 중이었는데, 식도정맥류의 파열로 인해 사망하였다.

Key Words : 라미부딘, B형간염, 사구체신염

Lamivudine, Hepatitis B, Glomerulonephritis